

광주의 다양한 매력에 당신만의 색 더해주세요



색을 칠하면서 광주 문화·역사 등을 배우는 '다정(情)다감(感)-광주 컬러링 여행'이 출간됐다. 양림교회 그림에 색을 칠하는 페이지(위)와 완성본.



에스마이스연구원·유오케이 '다정(情)다감(感)-광주 컬러링 여행' 출간

광주의 문화·역사·축제·음식·자연 담아

컬러링·스크래치·도트북 구성...엠편 출시

20일까지 '광주컬러링 여행' 공모전도 진행



"광주의 다양한 매력에 당신만의 색을 더해주세요." 몇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컬러링 북'은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며 '힐링 아이템'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조해너 배스포트의 '비밀의 정원'부터 불꽃기 시작한 컬러링북 열풍은 이후 민화, 패션, 빨강머리 앤 등 애니메이션과 동화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며 변신중이다. 빛고를 '광주'의 매력을 담은 컬러링 북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에스마이스연구원(주)과 유오케이가 제작한 '다정(情)다감(感)-광주 컬러링 여행'은 문화, 역사, 축제, 음식, 미디어아트 등 광주의 숨겨진 매력을 보여주는 책이다.

1장 '아시아 문화·예술의 향기에 취하다'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광주 예술의 거리, 광주 폴리, 전통문화관,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을 만날 수 있으며 2장 '남도의 매력 넘치는 자연을 만나다'에는 무등산 국립공원의 봄과 가을을 광주호 호수생태원, 광주천, 풍암호수공원을 담았다.

또 '역사의 흔이 잠들어 있는 광주를 걷다'에는 국립 5·18민주묘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광주 양림교회·오원기념각, 이장우 가옥, 한백당 등이 실렸으며 4장 '남도



무등산 보리밥

의 깊은 손맛을 맛보다'에서는 남도한정식, 송정 떡갈비, 무등산보리밥, 꽃게장 백반을 만날 수 있다.

5장에는 '생애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만나다'라는 타이틀로 광주세계김치축제, 추억의 7080 총장축제, 대인애술야시장, 1913 송정역시장, 조선대 장미축제, 고싸움놀이 축제 등을 담았다.

또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임을 감안, 특별 부록 '빛의 도시, 미디어 아트를 비추다' 섹션에 박상화의 '이너드림 월출산', 손봉채 '물소리 바람소리', 이이남의 '크로스 오버 쇠라', 정선휘 '삶은 꽃이다', 정은화 '빛의 열매' 등 미디어 작품 10점도 실었다.

컬러링북은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일어, 중국어 등으로도 번역됐으며 캘린더, 포스터, 카드북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컬러링북과 함께 발간된 '다정다감 도트북'은 수백개의 점과 점 사이를 선으로 이어 광주의 아름다움을 직접 완성해 보는 책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송정떡갈비 등을 컬러링북과는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만들었다.

오랫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시와 홍보일을 맡았던 에스마이스연구원의 박형민 대표는 광주를 알릴 수 있는 기념품과 관광문화상품에 아쉬움이 많았다. 광주를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는 생각에 컬러링북이 떠올랐고, VR과 AR 제작을 담당할 유오케이를 비롯해 심미희·황정은·김지영·노지원씨 등 지역 디자이너들이 함께 결합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컬러링북이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해 휴식과 힐링을 주는 면이 있는 점에 주목했어요. 광주를 다녀간 이들이 추억할 수 있는 좋은 기념품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또 이 책을 본 사람들이 '광주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박형민)

출간을 기념해 오는 20일까지 광주컬러링 여행 공모전(대상 30만원 등)도 진행한다. 책 속 콘텐츠를 채색한 후 사진 또는 스캔해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면 된다. 책은 다정다감 홈페이지(www.djdg.co.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컬러링북 1만원, 도트북 8000원, 문의 062-972-9650. /김미희기자 mekim@kwangju.co.kr

작가 6인의 '내 친구 반려동물'

신세계갤러리 7월11일까지 '헬로우, 마이 프렌드'전



박형진 작 '내 개와 나'

여섯 작가가 귀엽고 친근한 동물 친구를 소개한다. 광주신세계갤러리가 7월11일까지 '헬로우, 마이 프렌드'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박성수·박형진·변대용·빅터조·이승구·정승혜 등 작가 6명이 참여해 강아지, 고양이, 곰 등 동물을 소재로 한 입체, 회화, 설치작품 5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작가들과 반려동물의 만남과 헤어짐, 사랑과 상처, 교감과 치유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박형진과 빅터조의 작업은 작가 곁을 떠난 반려견에 대한 그리움에서 시작됐다. 박 작가는 어느 생일날 강아지 '소라'를 만났지만 2년 만에 세상을 떠난다. '소라'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상상해 그림으로 표현했다.

빅터조는 작업실에서 키우던 '바우'를 다양한 입체조각으로 재탄생 시켰다. 성격이 거칠고 늘 말썽을 부렸지만 귀여웠던 '바우'를 영화·영화 속 유쾌한 캐릭터로 묘사해 즐거움을 준다.

독일에서 유학 한 이승구 작가는 이방인으로서 겪은 경험을 입체작품 '핑구'를 통해 들려준다. 겉으로는 귀엽게 생겼지만 사나운 본능을 가진 사냥개 핑구처럼 사회적 제도에 순응하는 듯 하지만 동시에 자유롭고 싶은 열망을 보였다.

박성수 작가의 작품 주인공은 하얀 개 '빙고'와 빨간 고양이 '모모'다. '빙고'와 '모모'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에피소드에 등장하며 삶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한다.

또 변대용 작가는 동글동글한 동물의 이미지와 산뜻한 파스텔톤 색감으로 '아이스크림을 먹는 백곰' 시리즈를 출품했다. 빙하가 녹아 내리는 현실 속에서 백곰은 사람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찾아 나선다. 아이스크림은 잠시 고단함과 걱정을 덜어주는 위로와 위안의 음식이다.

정승혜 작가는 글 '반지의 달은 모두 별이 되리'를 재구성한 드로잉을 전시한다. 문의 062-360-127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명작 옮겨적는 즐거움... 새봄출판사 필사 잡지 '문득' 창간

최근 몇 년 새 필사(筆寫)가 출판계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문학작품 베껴쓰기를 전문으로 한 잡지도 선보인다.

새봄출판사는 이효석·이상·김유정의 작품을 실은 '나의 첫 필사노트'(2015)를 시작으로 여러 권의 필사책을 냈다.

이 출판사 김세봄 대표는 "기존 문예지들이 고수해온 전형적인 틀을 깨뜨리는 전혀 새로운 형식의 문예지를 모색했다"며 "책을 읽지 않는 현대인에게 잃어버린 감성을 되찾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 사연도 신는다. 작가를 인터뷰와 함께 시·소설 발표 지면도 제공한다.

새봄출판사는 이효석·이상·김유정의 작품을 실은 '나의 첫 필사노트'(2015)를 시작으로 여러 권의 필사책을 냈다. 이 출판사 김세봄 대표는 "기존 문예지들이 고수해온 전형적인 틀을 깨뜨리는 전혀 새로운 형식의 문예지를 모색했다"며 "책을 읽지 않는 현대인에게 잃어버린 감성을 되찾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62 호남예술제

새싹그리기 축제

접수기간 | 2017. 6. 7(수) ~ 6. 9(금)

개요 | 작품 공모

- 대상: 전국 미취학 어린이
- 시상: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 결과발표: 2017년 6월 22일(목)
-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에 발표
- 작품크기: 8절(개인 용지 사용가능)
- 주제: 제한없음

참가

- 참가비: 7,000원 (20명 이상 단체할인 4,000원)
- 접수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사 16층(우 61482)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싹그리기축제 담당자 앞

유의사항

-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사유 인정될 시 심사에 제외됨
- 공지내역 외 사항은 일반적인 대회요강에 준함

문의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

주최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목포시** **나주시**